

사랑에는 마음의 고통이 따른다.

As a rose can't live without the rain, so a heart
can't love without risk of pain. (Unknown)

장미가 비가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은 고통
의 위험 없이 사랑할 수 없다. (작가미상)

지난주(2013년 2월 21일~23일)에는 동경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의 나들이였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이틀 밤을 혼자 보낸 아내와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만 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부가 잠시라도 떨어져 있다 만났으니 다정다감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달콤하게 속삭였어야 했는데 말이지요. 곧 미안하다고 말을 했지만, 저녁을 먹다가 또 언성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참 감사한 동물이어서 자신의 마음에 조금만 거슬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싫은 내색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덕분에 아내로부터 “당신 NLP 트레이너 맞아

요?”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NLP 트레이너도 사람이다”라고 대꾸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이없는 부부간의 대화였습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지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말을 주고받았으니 말입니다.

아름다운 꽃의 대표 격인 장미꽃도 비바람을 견뎌내고 피어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고통을 겪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마음에 고통을 주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은 없을까요?